

---

# 2020년 제18호 방송심의보고서

---

2020. 4. 24. ~ 4. 30.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4. 24.	시청률	0.000

## 【총 평】

<여러분의 북마크> 제66회에는 미국 CNN 등 외신이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 건강이상, 중태설을 잇따라 보도하는 가운데 '북 김정은위원장 위중설, 진실은?'으로 순발력 있게 대응했다. 특히, 지난 20일 저녁 CNN 속보로 전한 김정은 위원장 위독설과 관련하여 22일 추가 촬영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동태와 위독설의 진위여부를 알아보았다. 당초 66회는 '확진자 없던 북한, 코로나19 사태로 급변하고 있는 북한의 정책방향'을 다룰 것으로 예고했었다.

<단박특>에서는 위독설 보도의 배경, 김위원장의 건강상태, 북한의 무반응 속내, 김여정 후계자 가능성,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활동 예상 시나리오 등을 다각도로 깊이있게 분석 보도해 시청자 궁금증을 풀어준 점도 이목을 집중했다. 또, 북한 무반응의 속사정과 김위원장의 깜짝등장 예상 시나리오를 내놓아 몰입도를 높였다.

북한조선중앙TV를 보여준 코로나19특집 <북마크TV>에서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봄맞이 대청소와 방역에 힘쓰는 평양시의 모습과 코로나 예방 면역증강을 위한 봄철 음식을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 【구성 및 내용】

<단박특> 북한 김정은 위원장 위독설, 충격속보의 진실은?

코로나19 사태가 주 의제였던 4월 11일의 북한 정치국 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이래 4월 12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및 4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독설이 속보로 보도되었다.

4월 20일 저녁 CNN 속보로 김정은 위원장이 중대한 수술을 받고 위중한 상태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후 정부에서도 김정은 위원장 근황에 대해 문제없다는 공식 보도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해당 사안에 대해 불필요한 언급을 삼가는 등 현재로서는 오보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 김정은 위원장의 현재 건강상태는 과체중이며 집권초기 무릎수술을 받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듯하다. 또한 과도한 음주와 흡연, 그리고 심근경색 등의 가족력 가능성도 있다. 현재 세계의 이목이 쏠린 상황에서, 북미협상용 군사훈련이 있거나 혹은 주민들을 의식한 건설현장 현장지도, 혹은 코로나19로 여파로 인한 주민들을 챙기는 모습 등 공개형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북마크TV> 코로나19 사태 속 북한의 봄맞이 모습은?

코로나19 사태 속 봄을 맞이한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1950년대부터 시작해 매년 3~4월에 전 주민들이 참여하는 위생월간사업을 통해 각종 시설의 도색과 정비, 수천 그루의 나무 실기 등 새단장을 하는 모습 등 북한의 모습을 알게 됐다. 또, 봄맞이의 주역으로 소개된 여성 도로관리공과 최초 공개된 청소자전거가 시선을 끌었다.

프로그램	최일구의 정말		
방송일자	2020. 4. 24.	시청률	0.004

## 【총 평】

<최일구의 정말> 제24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영준 원장을 초대하여 ‘콘텐츠와 문화의 힘으로 혁신성장 이끈다’를 주제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끄는 문화 콘텐츠의 산업화 성공 전략과 문화 콘텐츠 정책을 살펴보았다. 특히, 신한류를 완성하고 콘텐츠 강국으로 성공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문화콘텐츠 정책과 지향점을 각 장르별로 점검해 보았다. 방송·음악·게임·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패션·e스포츠·실감형 콘텐츠 등 다양한 장르로 나눠 콘텐츠 사업 지원과 정책, 기업과 창작자 육성 사업, 성장과 진흥 목표 등 문화콘텐츠 실체를 확실하게 전달하였다.

## 【구성 및 내용】

“콘텐츠와 문화의 힘으로 혁신성장 이끈다.”는 콘텐츠로 일상을 풍요롭게, 대한민국 콘텐츠의 힘, 신한류시대 콘텐츠산업 혁신전략, 정책금융 지원과 실감형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부터 콘텐츠로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역할을 소개했고, 대한민국 콘텐츠의 힘이라 할 수 있는 게임산업 지원과 콘텐츠 사업 구조의 변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언급 되었다. 이와 함께 신한류시대, 콘텐츠산업 혁신전략으로 e스포츠를 비중 있게 소개했고 VR, AR등 첨단 산업을 소개했다. 또, 정책금융 지원과 실감형 콘텐츠 개발 등 각종 지원의 필요성에 관해 강조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언급되었고, 한류 열풍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온라인을 통해 그 활동이 더욱 다각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되었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소개해 주었다. 또, 전국에 많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분원들이 콘텐츠 가치 창조에 이바지하고 콘텐츠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작년 9월 발표한 ‘신한류 지원방안 강화’ 내용을 살펴보고, 한류와 신한류의 차이점, 앞으로의 보완방향을 알아본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그 동안 한류는 민간 주도의 일방적인 경향으로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넘어서는 쌍방향 민관 주도의 정책을 마련할 것임을 소개했다. 콘텐츠로 인한 수출은 작년 한해만 해도 약14조 9천억으로 매년 증가하고 고용 창출과 관광예술산업이 번창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과 정책 금융관련 아이디어 단계부터 금융자금을 투여할 수 있는 ‘모험투자펀드’를 언급해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었고 실감형 콘텐츠 사업 또한 ‘광화문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흥미로웠다.

최일구 진행자는 방송을 아주 능수능란하고 쉽게 진행하는 것 같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방송에 대한 준비를 다각적으로 잘 해오는 것 같다. 그래서 항상 대본에 준비된 내용보다 실제 방송이 더 내용이 풍성하게 느껴진다.

프로그램	밥보다 법		
방송일자	2020. 4. 25	시청률	0.001

## 【총 평】

<밥보다 법> 제8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내외 외출자제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서 야기될 수 있는 생활 문제 ‘멀어지는 이웃 사이, 층간소음 분쟁’을 방송하였다. 코로나19로 늘어난 집콕, 재택근무, 온라인 개학은 이웃 간의 층간소음 분쟁을 불러왔는데, 오늘의 법짱 신성현 변호사가 출연하여 층간 소음 분쟁 관련된 다양한 해결 방안과, 유형 별 대안, 제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특히, 층간소음 문제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없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법률적 처벌 근거로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인근소란에 대해 처벌이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과료의 처벌을 집행할 수 있다.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려주었다.

##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심각해지는 층간소음 문제에 관해 다루어 상당히 유익했다. 층간소음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니 다루지 않은 매체가 없을 정도로 식상한 아이템이기는 해도 최근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각 세대마다 더욱 골칫거리 문제로 부각되는 시기에 법률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보겠다는 취지가 좋았다.

법률다락방에서 제시한 키워드 중에서 걱정, 스트레스, 신경, 아파트, 이사, 복수, 살인 등이 층간소음발생과 연관성 있는 단어였다.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해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원인을 일으킨 집에게 대응하는 문제해결 방법이 소개되었다. 특히, 감정 싸움으로 비화돼서 층간소음을 일으킨 집을 찾아가 협박하거나 폭행하거나 고함을 질렀을 경우 명백한 불법행위가 없다는 치더라도 가벼운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주었다. 또, 증거수집의 방법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민원제기 부분에 대한 녹음과 경비실, 공동주택 관리자, 경찰의 소음 신고 등을 사례로 제시해 주었다.

‘법 관련 지식과 정보’ 외에도 지혜로운 대처법, 멘탈 관리, 행정적 도움, 시민의식 등 여러 측면에서의 정보와 해법을 추가했다. 사실 아직은 층간소음 규제법안이 약한 게 현실인데, 기타 다른 측면의 내용들도 꾸리면서 정보를 보강하고 적절한 방향을 찾아준 시간이 돼 유익했다. 또, 생활법률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잘 전달해 법 준수를 유도한 효과가 있었다. ‘층간소음과 주거침입죄’는 함께 묶이기 쉬운데 관련해 ‘주거침입 사례와 처벌 내용’을 전했다. 특히 최근 ‘신림동 주거침입 시도’ 사건으로 주거침입죄 처벌이 강화된 상황을 알려, 강력한 주의 환기 효과가 있었다.

‘밥상머리 차트’에서 소개한 “배달 음식 족발 시식 중, 사소한 증거도 증거는 증거다, 화난다고 화를 내면 더 큰 화를 부른다, 이웃의 이름을 부를 때 진짜 이웃이 된다” 등 재치 있는 어휘 선택과 리듬감 있는 운율이 두드러져 보였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방송일자	2020. 4. 25.	시청률	0.108

### 【총 평】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제9회는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가파도를 방문하여 봄을 맞이하여 바람에 일렁이는 청보리밭과 손님을 맞이하는 민박집, 물질을 하는 해녀들의 모습을 담았다. 과거 1,100여명이 살던 가파도는 이제 200명이 채 살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한때 자급자족을 위해 재배했던 청보리밭이 외부 손님들의 관광지로 알려져 찾아오는 것이 반갑다는 주민들이다.

가파도의 푸른 바다와 청보리밭, 노란 유채꽃 등 한 폭의 풍경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청보리 사이로 봄바람이 일렁이는 소리, 해안절경의 파도 소리, 가파도 해녀들의 억척스런 삶의 소리가 녹아나 풍경과 소리가 조화를 이룬 수준높은 다큐멘터리로 탄생했다. 또, 가파도의 희귀 어종과 섬마을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무속신앙의 흔적, 가파도의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담아 전했다. 특히, 청보리밭, 낚시꾼과 관광객이 드나드는 민박집, 가파도 해녀들 등 3가지 요소로 가파도를 깊이있게 조명한 구성이 깊은 인상을 남겼고 여행작가의 눈과 귀에 비친 거제도의 모습을 관찰자의 시청각으로 밀착 표현한 점이 강점이었다.

### 【구성 및 내용】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가파도의 봄을 통해 45년간 경운기를 직접 몰며 곳곳이 살아온 70대 노파, 딸과 함께 민박집을 운영하는 여주인, 60년간 물길질로 5남매를 키웠노라고 털어놓는 가파도 해녀의 말 속에서 가파도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음을 말해주었다. 또, 텃밭에서의 방풍나물 재배, 낚시꾼이 낚아올린 희귀어종 납치 농어, 해녀 입수후 수중 모습 등이 시각적 몰입도를 높였다.

봄이 되면 푸르른 청보리가 바람에 의해 파도처럼 일렁이는 가파도에는 청보리밭이 유명하다. 청보리 재배는 이곳 가파도 주민들에게 귀한 일거리다. 가파도는 과거 1,100명 정도 살던 섬으로 쌀이 나지 않아 보리를 재배하여 자급자족하며 살게 해준 작물이다. 이런 청보리밭이 언젠가부터 관광지로 유명하게 되어 이맘때가 되면 청보리밭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북적이곤 한다.

가파도 민박집의 아침은 손님맞이 준비로 분주하다. 40여년 전 시작된 가파도의 민박집은 소라껍데기로 한쪽 벽을 가득 장식한 것이 가파도만의 특색일 것이다. 가파도에서는 과일 등이 재배되지 않아 민박집 주인아주머니는 모슬포의 시장에 나가 손님들에게 대접할 과일을 구매한다. 가파도는 바람과 파도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섬사람으로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를 올리는 제단이 몇 군데 있다. 한편 200명이 채 안되는 가파도 사람들 중 해녀들이 40명이 넘는다. 가파도 아주머니들 대부분이 물질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물질이 힘들어 보여도 해녀분들은 바다를 떠난 삶을 상상할 수 없다고 한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4. 28.	시청률	0.000

## 【총 평】

<국민리포트>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을 국민의 시각에서 생활밀착형 뉴스를 전했다. 현장개선 문제를 비롯해 새로운 트렌드, 캠페인성 정보 등을 중심으로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소식을 전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연장선상에서 그에 관련된 리포트들이 소개됐지만 조금 더 시각을 확대하여 등록금 반환 문제나 임대료 감면 등 사회적인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해준 국민기자들의 역할이 빛났다.

특히, 등록금 반환과 관련, 교육 콘텐츠는 어쩔 수 없는 변화나 시스템 오류로 교육 질이 떨어지는 문제는 예상할 수 있었으나 '시설이용비' 등의 부분에는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했는데, 대학 내의 여론을 다양하게 짚어주며 관심을 모으는 기회가 됐다.

## 【구성 및 내용】

### ■ 온라인 강의 문제 등록금 반환 목소리 커져 (허유진 국민기자)

코로나19로 대학교 온라인 수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불만을 담아 공감도를 높였고 그에 대한 논리적인 뒷받침도 충분히 다루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짚어보고 등록금 반환요구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들어봤다. 특히, 운영이 중단된 도서관 대신 어쩔 수 없이 카페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불만이 큰 실정, 불필요한 경제적 지출이 많으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소개했다.

### ■ 착한 임대인 운동, '감사해요' 보답하는 세입자 (박혜진 국민기자)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임대인들의 임대료 감면 실태를 취재하고 그에 대한 임차인들의 고마운 마음과 사회적 영향력을 시사했다. 최근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꽃집 주인이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 조치를 가게 앞에 써붙여서 고마움을 표시했고, 포차를 운영자도 임대인의 배려를 SNS에 올려 고마움을 표현했다.

### ■ 장애인도 편하게 여행해요, 일부 아쉬움도

대전 여성장애인연대 무장애여행팀이 '대전의 주요 여행지를 직접 찾아가 대중교통 접근성과 편의시설을 확인해 기록한 책자'를 소개했다. 특히 '무장애 여행팀이 현장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면 시에 건의했고 실제로 화장실이 수리되고 강당 입구에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는 등 개선이 이뤄짐'을 보여줬다. 또, 장애인분이 해당 장소를 돌아보면서 장애인 입장에서 어떤 점이 아쉬운지 검증하는 장면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다.

### ■ 도서 대출 서비스 확대, 책 읽는 도시 세종

세종시에서 시행 중인 도서 대출 서비스와 절차를 소개했는데,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이 칩거하고 있어야 하는 시기에 아주 유익한 정보였다. 특히, 서점에서 도서를 대출해주는 서비스가 눈길을 끌었다.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0. 4. 28.	시청률	0.000

### 【총 평】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둔화돼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이제 관심은 코로나19 이후의 경제동향으로 쏠리고 있다. 1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톡톡 사이다경제>는 ‘1분기 성장률 -1.4%, 주력산업 지원방안은?’을 통해 경제난국 돌파구 동기부여 기획이 뛰어났다. 특히 자동차, 항공, 해운, 정유, 조선업 등 5개 주력산업에 대한 코로나19 영향 분석과 지원방안을 다루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 전망되지만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으로 돌파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진단한 부분이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무디스에서 한국의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내용도 인용했다.

###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국내는 물론 다수 국가에서 1분기 성장률이 좋지 않으며 2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에 있어서도 부정적이다. <톡톡 사이다경제>는 국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주력산업의 지원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1분기 성장률 -1.4%, 주력산업 지원 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 오히려 -1.8%를 예상했는데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특히 민간소비가 -6.4% 감소한 것이 영향이 크며 -2%를 보인 수출도 영향을 끼쳤다. 다만 정부 소비 및 각종 투자가 이를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자동차, 항공, 해운, 정유, 조선업 등 주력산업에 대해 코로나19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부품수입에 대한 혜택 및 구매보조금 확대 등의 내수진작을 이끌어 내려고 한다. 항공산업은 LCC의 피해가 큰 가운데 3,000억 원 정도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긴급자금 지원하고 매출 감소에 따라 공항시설 비용 부담 완화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해운산업은 물동량 감소가 큰 문제점으로 역시 유동성 확보 위한 자금 지원 및 한국해양진흥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정유산업은 유류세, 수입관세 및 부가세 납부를 연장시켜주며 조선산업의 경우 제작금융 지속 지원 및 선수금 환급 혜택 확대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경제&이슈>에서 무급휴직자 지원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는데, 무급휴직자 32만 명에게 150만 원씩이 지원된다는 내용이 상세히 안내됐다. 또, 진단기법, 선별진료소 운영시스템, 역학 추적, 격리 치료 등 K-방역모델이 국제표준화되면 한국위상이 격상되고 자긍심이 높아지는 기대효과를 언급했다.

특히, 진행자의 경제 핵심 이슈에 대한 분석력이 뛰어났고 “정부의 지원대책이 효과를 거두길 기대 한다”, “K-방역이 성공적이나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마무리가 시청자의 이해와 만족도를 높였다.

프로그램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		
방송일자	2020. 4. 30.	시청률	0.044

### 【총 평】

코로나19 방역이 청신호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 제31회는 방역성공의 요인을 분석하면서 ‘혁신적 아이디어’에 주목한 기획이 돋보였다. ‘힘내라! 대한민국-코로나19, 아이디어로 맞서라!’는 K-방역모델의 성공요인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드라이브 스루 도입, 공적마스크 재고 알리기 등 창의적 아이디어에 따른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적시한 구성이 설득력을 높였다. 특히, K-방역의 우수성과 노하우를 전 세계에 알려 공유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의료진의 모습이 소개돼 민족적 자긍심을 고양한 부분이 좋았고, 코로나19 확산에 아이디어로 맞선 주인공들을 인터뷰를 통해 소개한 점이 흡인력을 높였다.

방송 당일(4월30일)은 코로나19 국내감염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의미있는 날로 72일 만이었다. 국가 재난상황으로까지 악화됐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드는 것은 다행한 일로 국민의 안정감도 높아지고 있다.

###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 사태가 한 고비를 넘기는 상황에서 성공적인 방역에 기여한 요인과 크고 작은 아이디어가 무엇이었는지 분석해보는 기획이 참신하고 의미가 깊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대응 모범국으로 평가되며 세계 각국에서 방역정책과 관련 기술 공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한국형 방역모델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에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워킹스루 진단은 세계적인 방역시스템 중 하나로 음압 부스 안에서 이뤄지는 검체 채취 방식을 차용했다. 의료진과 환자사이의 접촉이 없어 감염 우려도 적으며 검사시간은 채 5분도 걸리지 않아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단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접수, 문진 채취 등 모두가 이뤄지는 시간은 10분 내로 세계 주요 언론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극찬하며 여러 국가에서 벤치마킹해서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불필요한 외출 자제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을 위해 드라이브, 워킹스루를 활용하여 장난감이나 도서대여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어 아이가 있는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 밖에 창의적 아이디어 사례로 공적마스크 재고 알리기, 청각장애인용 마스크 개발, 비대면 온라인 원격수업, 드론활용 방역소독, 지폐 특별소독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논거를 확실히 입증시키는 구성으로 수용자의 시각적 몰입도와 전달력을 높였다. 또, 드라이브 스루 제안자를 비롯해 공적마스크 재고현황 알리미를 제작한 대학생, 청각장애인용 마스크 제안자 등의 인터뷰가 이 인터뷰로 소개됐다. 정부는 총75개국과 감염병 관리 웹세미나를 개최했고 이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방역경험 및 기술을 세계에 공유했다.